현대소설연구 (제66호)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http://dx.doi.org/10.16894/JKFR.66.1.14

# 在滿 조선인 중 · 단편소설에 나타난 '만주'의 표상 연구 –≪싹트는 大地≫에 수록된 작품을 중심으로–

張 乃 禹*

## 요 약

이 글은 재만 조선인 작품집 ≪싹트는 大地≫에 실린 중·단편 소설에 나타난 만주 표상에 대한 연구이다. ≪싹트는 대지≫는 만선일보사에서 발행한 재만 조선인 창작집이다. 안수길의 〈새벽〉, 신서야의 〈추석〉, 김창걸의 〈암야〉 등의 작품은 '전기 개척민의 생활을 그린 것'으로서 초기 이주민들의 수난사를 여실히 드러낸다. 재만 조선인들의 극한 궁핍과 비극적 삶을 애상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이주민들이 낯선 땅에서 겪은 고통과 부조리를 고발한다. 위 작품들에 나타난 만주는 고난과 궁핍으로 점철된 이주민들의 수난의 공간으로 표상된다.

한편 ≪싹트는 대지≫는 『만선일보』를 중심으로 성립된 소설집이기 때문에 그 성격은 『만선일보』의 국책적인 성격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 소설에는 친일적인 성향이나 만주국의 치국이념에 부합하는 주제의식이 배어있을 수밖에 없다. 박영준의 〈밀립의 여인〉은 일제에 저항하는 공산비를 선무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한찬숙의 〈초원〉은 일제 침략을 정당화하여 민족협화의 이데올로기를 선전한다. 현경준의 〈유맹〉은 일제의 국책에 순응하여 '왕도낙토'를 건설하려는 통치이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 소설들에 나타난 만주는 시대적 현실에 순응해서 일제의 정책을 지원하는 '오족협화'의 공간으로 드러난다.

* 中國, 蘇州大學韓國語學科, 副敎授

황건의 〈제화〉는 만주국을 절망과 혼돈의 공간으로 설정한다. 소설 속에서 희망을 품고 만주에 갔던 주인공은 '문화청년회'를 둘러싸고 친구와 갈등한다. 현실에 대한 절망과 허무의식으로 인해 자살을 결심하는 '나'를 통해 만주국 건국이념의 모순성과 허위성을 폭로하려 한다. 주인공이 견디기 힘든 현실에서 죽음에 가치를 부여하려 하는데, 이는 현실 도피 의식을 현시하는 지점이자 일제 건국이념의 허구성을 피력하려는 시도가 마침내 비관적 시각에 머물고 마는 계기이기도 하다.

≪싹트는 대지≫ 수록 소설에 나타난 '만주'는 '수난의 공간'이자 '오족협화'라는 이데올로기의 선전 장이며, 지식인의 도피의 공간이었다. 이와 같은 다층적 의미의 공존은 무엇보다 만주에 내재한 공간적 중층성, 즉 어떤 하나의 국가나 민족의 문화로 설명할 수 없는 '공간적' '비식별역'으로서의 성격과 직접 연관된다. 아울러 친일성향의 국책문학이라는 평가를 비껴갈 수 없는 부분 또한 '심리적' '비식별역'으로서의 재만 조선인 작가들의 의식의 다면성에 기인한 사실적인 현상이다.

주제어: ≪싹트는 대지≫, 만주의 표상, 오족협화, 수난사, 허무의식

목차

1. 문제 제기
2. ≪싹트는 大地≫ 수록 소설 속의 '만주'
3. 맺음말

## 1. 문제 제기

일제가 중국 동북 지역을 점령하기 전에 간도에는 이미 상당한 수의 조선인 이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만주국 건국 후부터 일제는 군사적 후비역량을 증대하고 항일세력들을 말살하기 위하여 일

련의 탄압을 진행하는 동시에 이민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한다. 이에 더 많은 조선인들이 만주[1]에 이주하게 되었다. 많은 조선인들이 만주에 이주함으로써 일제는 문화적 회유정책을 펼치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만선일보』 같은 신문에 민족어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었다. 당시 일제의 회유정책으로 인해 만주의 문학 또한 '암흑기'에 빠져 있는 조선 문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싹트는 대지≫는 이런 문학 창작의 분위기에서 나타난 재만 조선인 작품집으로서 1941년 신경(新京)특별시에 소재한 『만선일보』 출판부에서 간행된 것이다. ≪싹트는 대지≫에는 염상섭의 서문과 신영철의 후기가 달려 있고 그 외에 金昌傑의 〈暗夜〉, 朴榮濬의 〈密林의 女人〉, 申曙野의 〈秋夕〉, 安壽吉의 〈새벽〉, 韓贊淑의 〈草原〉, 玄卿駿의 〈流氓〉, 黃健의 〈祭火〉 등 일곱 편의 소설이 수록되어 있다.[2] 염상섭과 신영철은 서문과 후기를 통해서 이 소설집이 만주개

1) 만주는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민족의 호칭인 만주족으로서의 만주이다. 『淸太祖高皇帝實錄』 관련 기록에 의하면"만주라 함은 그 내원이 오래되지 않아 부족을 대표하는바 숙신(肅愼), 말길(勿吉), 여진(女眞)과 상응하며 지명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만주는 부족의 명칭으로서의 만주족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지명으로서의 만주이다. 천총(天聰) 9년(1635년) 황태극(皇太极)은 부족의 명칭을 만주로 개칭한 후 그들이 사는 일대를 같이 일컬어 만주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때로부터 만주는 족명과 지명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었으며, 청나라 말엽부터 지리적 명칭으로 만주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지리적 명칭으로서의 만주는 오늘날 중국의 동북지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요녕성(遼寧省), 길림성(吉林省), 흑룡강성(黑龍江省)과 내몽고자치구(內蒙古自治區)의 북동 지역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국가'로서의 만주이다. 1932년 3월 1일부터 1945년 8월 18일까지 일제 통치하에 존재했던 괴뢰정권 즉 '만주국'을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된 후 '만주'라는 단어를 일제하 괴뢰정권시기 '만주국'과 구분하기 위하여 '동북' 혹은 '동삼성'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일본에서는 '구만주'라고 칭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만주'로 고착되었으며 학술영역에서도 '만주'라는 용어로 보편화되었다.

2) 일곱편 가운데 〈草原〉 과 〈祭火〉는 처음 발표한 작품이고 〈流氓〉 은 1940년에 『인문평론』에 발표되었던 것을 일부 수정하여 실었다.

척사의 문학적 형상화이며 개척민들의 운명과 정서를 나타냄으로써 조선 문학과는 다른 대륙적인 풍격을 볼 수 있다고 극찬한다. 또한 신영철은 후기에서 "무슨 偏狹한 생각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現地主義를 지키지 않으면 意義가 적다는 意味에서 現地居住人의 現地取材의 現地作品으로서 現地發表를 中心삼고 原稿를 모으기로 했습니다."[3] 라고 기존 조선 문학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현지취재', '현지작품', '현지발표'에서 보여주듯 '현지주의' 원칙을 아주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볼 때 현지 거주인의 현지 취재에 의한 현지 작품들에는 반드시 만주의 여러 가지 표상들이 그대로 표출되기 마련이다.

'만주'의 표상에 관한 기존연구는 주로 장편소설을 대상으로 한 성과인데 반해서 본고에서는 주로 중·단편소성을 중심으로 논의하게 된다. ≪싹트는 대지≫에서의 〈流氓〉은 비교적 긴 분량으로 중편소설에 해당하고 그 외 여섯 편은 모두 단편소설이다.

만주 및 만주문학에 대한 각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관련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근·현대 소설에 나타난 만주의 표상이나 이미지를 다룬 연구가 다수 제출되었다. 그만큼 만주는 "한국근대문학 연구의 외연을 넓혀준 중요한 문학적 공간"이며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기억과 역사가 얽혀 있는 문제적 공간"[4]이라는 사실로서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기존연구에서 ≪싹트는 대지≫를 비롯한 재만 조선인 문학에 대한 연구는 찬반 양극으로 엇갈리면서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는데 논의의 초점은 국책문학이냐 아니면 저항문학이냐 하는 데 집중되었다. 즉 '암흑기' 조선 문단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민족문학'으로의 위치까지 격상되는가 하면, 일제의 만주 지배 정책에 어느 정도 동조한다는 점에서 친

3) 신영철, 『「싹트는 대지」 뒤에』, 신경만선일보 출판부, 1941, 3면.
4) 손유경, 「만주 개척 서사에 나타난 애도의 정치학」, 『현대소설연구』 제42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9, 192~193면.

일문학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오양호는『韓國文學과 間島』(1988),『日帝强占期滿洲朝鮮人文學研究』(1996),『滿洲移民文學研究』(2007) 등 저서들을 통해 식민지 말기 만주가 한국문학의 명맥을 이어갔던 중요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만주는 새롭게 주목되고 연구되어야 할 공간임을 강조하면서 그 해답을 간도 이민문학에서 찾고자 한다. 그는『싹트는 대지』등 창작 성과들을 소개하고 광복 직전까지 만주에서 발행되었던 한글판 신문인『만선일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당대 만주 조선 문학의 희귀한 자료들의 발굴과 동시에 재만 조선인 문학을 한국 근대문학의 중요한 위치로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김윤식[5]은 안수길과 염상섭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만주국의 존재를 크게 부각시키면서 그들의 문학에 내재된 국책적 성격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채훈은 ≪싹트는 대지≫의 작품들이 역시 친일문학의 측면이 없지 않다고 주장했다.[6]

2000년대 들어 문학연구에서 포스트콜로니얼 문학연구방법론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만주는 다시 주목의 대상이 된다. 하정일은 탈식민주의 이론을 기반으로 이원대립법의 타파를 강조하면서 한국문학의 전통에 포함된 진보와 개혁을 재구성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주장한다. 그는『탈식민의 미학』에서 일제시기 한국현대문학의 저항방식을 세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는 대안적 저항으로 민족주의, 마르크스주의 문학이 이 부류에 속하며, 주로 1930 년대 이전에 창작된 작품들이 많이 포함된다. 둘째는 내적 저항으로 주로 자아반성과 신분확인으로서 내부로부터 적을 격화시키는 방식인데 1930년 후기의 문학이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혼종적 저항으로 그것은 순응과

5) 김윤식,『안수길 연구』, 정음사 1986.
_____,『염상섭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6.
6) 채훈,『재만 한국문학 연구』, 깊은샘, 1990.

저항의 경계선을 부단히 오가면서 형성된다. 그러나 그것은 '회색지대'와 달리 식민주의 자체에 분열을 주는 것으로 완성되는 저항 행위로서 1940년대 초부터의 대부분의 문학이 여기에 해당된다.[7] 장춘식은 「재만 조선인문학을 보는 또 다른 시각」(2016)에서 호미바바(Homi K. Bhabha)의 혼종성 이론을 거론해서 일제강점기 재만 조선인문학을 논의하면서 흑백의 논리로 이른바 친일문학 혹은 친만주국적인 문학을 평가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혔다.

이상과 같이 재만 조선인 문학은 논의의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과 평가가 가능하다. 관련된 연구 성과물도 많이 나온 편이다. 본고는 우선 '민족문학', '저항문학'과 같은 긍정적인 평가의 관점과 '친일문학', '어용문학', '체제협력문학', '현실순응문학' 등과 같은 부정적인 평가의 관점을 벗어나고자 한다. 그래서 ≪싹트는 대지≫를 중심으로 재만 조선인 중・단편소설 작품에 반영된 '만주'의 표상과 만주의 다층적인 의미를 사실적으로 밝히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나아가 ≪싹트는 대지≫에 나타난 '만주'는 이주민들에게 어떤 공간이었는지, 식민지적 실상이 어떻게 서사를 통해 표현되었는지, 일제의 '민족협화', '왕도락토'의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하층민과 지식인들의 절망과 허무의식을 통해 만주국 건국이념에 은폐되어 있는 허구성이 어떻게 폭로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싹트는 大地≫ 수록 소설 속의 만주

≪싹트는 대지≫는 만선일보사에서 발행한 재만 조선인 창작집인

7) 하정일, 『탈식민의 미학』, 소명출판, 2008, 32~34면.

데 『만선일보』는 1937년 만주국내의 2대 국문판지(國文版紙)였던 신경(新京)의 『만몽일보』와 용정(龍井)에 있던 『간도일보』를 통합 발간한 신문이다. 당시 『만선일보』에 실린 대부분의 문학 작품들은 이 신문의 취지[8]와는 달리 만주 조선인의 생활과 정서를 다양한 형태로 대변하고 있다.[9] 安壽吉의 〈새벽〉, 申曙野의 〈秋夕〉, 金昌傑의 〈暗夜〉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작품은 조선인 이주민들이 만주 개척지에서 겪은 가난하고 고달픈 삶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주민의 수난사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소설에 나타난 만주는 고난과 궁핍으로 인한 수난의 공간이 된다. 그러나 『만선일보』는 친일 어용지였기 때문에 여기 실린 작품 모두가 일제의 국책에 순응했다고 몰아세우는 경향이 있다.[10] ≪싹트는 대지≫에 수록된 작품들은 대부분 『만선일보』 지면에 발표했던 소설들이므로 그 소설에는 친일적인 성향이나 만주국 치국이념에 부합하는 주제의식이 스며들기 마련이다. 예컨대 朴榮濬의 〈密林의 女人〉, 韓贊淑의 〈草原〉, 玄卿駿의〈流氓〉 등 소설에 나타난 만주의 표상은 만선일체의 이데올로기를 선양하고 '오족협화'라는 건국이념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설정되었다. 그리고 일본 학자가 ≪싹트는 대지≫에 대해 "이 작품집 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색채가 어둠과 박명, 다시 말하면 음울한 절망과 희박한 희망의 미묘한 범벅이가 되어 있다[11]"라고 언급한 바가 있다. 黃健의 〈祭火〉는 만

8) 만주에는 일찍부터 150만 내지 200만 명의 한국인이 살고 있어 일제는 정책적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일제는 『만선일보』를 통해 재만 조선인의 언론을 장악하고자 했으며, 정치구호로 내세운 만선일여(滿鮮一如)를 달성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만선일보』 같은 신문을 홍보와 선전을 위한 기관지로 이용하려 했다.

9) 오상순, 『개혁개방과 중국조선족 소설문학』, 월인, 2001, 16면.

10) 신희교, 『일제말기 소설 연구--어용성과 순수지향의 두 측면에 대하여』, 고려대 박사논문, 1992, 89면.

11) 사에구사 도시카쓰, 『만주의 한국문학』, 경희문선 3집, 1977, 15면.

주를 절망과 혼돈의 공간으로 묘사했는데 만주국 건국이념에 은폐되어 있는 허구성을 폭로하려고 시도했지만 끝내 비관적 시각에 머물고 말았다. 그래도 〈祭火〉는 일제치하 지식인들의 고뇌와 현실대응 방식을 그대로 반영하며, 소설에 나타난 만주는 절망과 허무의식이 가득한 도피의 공간으로 재현된다.

### 1) 고난과 궁핍: '수난의 공간'

이국타향인 만주에 삶의 근거를 두고 살고 있었던 조선인 이주민들에게 만주는 우선 일차적으로 생존의 터전이다. 그들은 이 터전에서 일제의 사상적 통제와 경제적 수탈, 마적의 습격, 지주의 횡포 등으로 인해 조선에서와 다를 바 없는 고통에 시달렸다. 안수길의 〈새벽〉은 만주로 건너간 한 이주민 가족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사실 "안수길은 '생계형이민'의 정착 의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표명한 작가이다."[12] 〈새벽〉에서 고달픈 삶의 모습은 극도의 비극으로 드러나면서 만주라는 지리적·역사적 공간이 이주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 것인가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새벽〉은 '창복'이라는 소년의 회상을 통해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이주민 가족의 비극적인 삶을 사실적으로 제시한다. 함경도에서 만주로 이주한 창복 일가는 얼되놈 박치만의 소작인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비극은 여기서 시작된다. 박치만은 중국인 지주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동포들에게 온갖 나쁜 짓을 자행한 인물이다. 창복의 아버지는 생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법으로 금지된 소금 밀매를 감행했다. 소금 밀매는 이주민들의 궁핍한 삶과 중국 관권에 의해 착

12) 임명진, 「일제강점기 '재만한인소설(在滿韓人小說)'을 통해 본 '만주'의 문제」, 『현대소설연구』 제1호, 2006, 46면.

취당하는 조선인의 모습을 잘 보여준 대목이다. 아버지가 위험을 무릅쓰고 소금을 밀매하는 것은 지주로부터 빚을 얻으면서 담보로 잡힌 딸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다. 그런데 딸인 '복동예'를 탐내고 있는 박치만은 아버지가 소금 밀매하는 것을 알고 중국 경찰에 밀고해 버렸다. 그 목적은 창복의 아버지로 하여금 벌금 때문에 본인으로부터 돈을 꾸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복동예'를 노린 것이다.

> 이 나라의 습관은 인질이라는 것을 조금도 어색하게 생각지 안헛다. 주인들은 이 이방의 괴습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업섯다. 그럴법이 어데잇나하고들 모다 무슨부정한 일을 하는 것가치 마음이 쩨름칙하엿스나 그러지 안흐면 돈을 돌려주지안는데는 할 수가 업섯다. 설마 남의 처자를 빼아슬라고 이러케 생각하엿스나 그결과는 이짜금사실로 나타나는 경우도 잇섯다.[13]

이 이방(異邦)의 괴습(怪習)은 돈을 빌릴 때 딸이나 아내를 담보로 맡기는데 빚을 못 갚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여자를 빼앗아 버리는 것이다. 창복의 아버지도 빚을 내면서 창복의 누이 '복동예'를 담보로 했는데 그 빚을 갚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해봤다. 심지어 불법적인 일도 서슴지 않고 결국 경찰에게 잡혀갔다. 박치만의 도움으로 아버지가 석방되지만 '복동예'는 박치만에게 끌려갈 운명에 놓인다. 결국 박치만에게 시집가기로 한 '복동예'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로써 담보로 잡힌 딸을 구하기 위한 아버지의 모든 노력은 허사가 되고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미쳐 버린다.

〈새벽〉은 살 길을 찾아 들어간 만주 땅의 괴상한 풍습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안정된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조선 이주민들

13) 안수길, 〈새벽〉, 신영철 편, ≪싹트는 대지≫, 만선일보사 출판부, 1941, 85면.

의 실태를 '인질'이라는 무도(無道)한 악습을 통해 실감나게 드러내 보인다.[14] 소설에 나타난 만주는 역시 가난과 궁핍으로 인한 비극의 공간인데 이 공간에서 창복 일가가 겪는 고통은 개인이나 가족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모순에 의한 것이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탈출할 수 없는 구조와 거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이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더욱 비참하게 묘사된다. 일제의 만주 개척은 조선인 이주민에게 살아가는 길을 찾아주기는커녕 더욱 심한 착취와 고통을 겪게 하는 부정적인 정책이다. 사실은 이주민을 괴롭히는 사람은 박치만 같은 얼되놈 외에 더 무서운 마적, 육군과 순경 등이 존재한다. 소설 속에서는 마적의 습격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해야 할 육군과 순경이 오히려 더 무서운 착취자로 등장한다. 먹을 것도 빼앗고 부녀자를 강탈해서 마적보다 흉한 중국의 육군은 장작림(張作霖)의 사용병(私傭兵)으로 대변된다. 그들이 마적보다 더욱 잔혹하다는 사실은 그들이 자행하는 약탈과 횡포가 '법이 허락하는' 것이었다는 데 있다.

> 그들(장작림 군벌의 사용병)은 농촌에 다니면서 약탈하지 안흐면 그들의 생활을 유지할 방도가 짜로 업섯다. 법이 허락하는 약탈! 그러타 그들의 횡포에 대하여는 호소할 곳이 업섯다. 우리는 육군과 순경을 사람가치 안 여기면서도 그들아페 겁을 내지 안흘수 업섯다.[15]

사용병들의 약탈과 난폭에 대해 이주민들이 호소할 곳도 없는 것은 그들의 참혹한 실상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만주국 건국 후에도 농민들은 지방 지주와 일본 식민 회사로부터의 착취, 잡다한 세금,

14) 김동민, 『1940년대 전반기 '개척소설'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33면.
15) 안수길, 〈새벽〉, 앞의 책, 92~93면.

고리대 등으로 인해 계속되는 가난에 시달려야 했다."[16] 이로 보아 만주국 조선 농민들이 경제적인 궁핍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충격에 시달렸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申曙野의 〈秋夕〉은 만주 이주민들의 초조와 불안정한 내면을 잘 그려내고 "아무런 정치적 권리와 인간적 존엄도 보장 받지 못하는 조선인 농민의 고뇌와 애수를 서글픈 음조로 묘사한"[17] 작품이라고 평가된다. 작가 신서야는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며 부조리한 현실을 폭로하려 한다. 〈추석〉은 사미를 팔다 감시원에게 적발된 충격으로 죽은 아내를 둔 남편이 아내의 추석 제수(祭需)와 어미 없는 딸들에게 인조견 옷을 한 벌씩 사주기 위해서 아내가 했던 사미밀매를 하게 되는 비극적인 이야기다. 김서방은 달구지에 모래를 싣고 그 속에 쌀을 숨겨 팔아 20원을 마련한다. 포목전으로 들어가기 위해 달구지를 길가 전신주에 매어둔 탓에 교통 방해죄로 순사에게 끌려간다. 그는 환갑을 넘긴 사람에게는 나라도 죄를 주지 않는다는 말만 믿고 순사에게 잘못했다고 빌지만 혼이 난 후에야 가까스로 풀려난다. 이것은 당시 일제에 의해 이주민들이 얼마나 고난과 핍박을 겪고 있는가를 말해준 스토리다. 김서방에게 만주는 서러움만 안겨주는 공간인데 힘없는 피지배 민족의 애환이 배어 있어 일제에 대한 분노와 저항을 느끼게 한다. 김서방이 당하는 불합리함에 그저 평소부터 입버릇처럼 불러오던 '춘강화월야(春江花月夜)인데 추창풍우석(秋窓風雨夕)'이란 시를 읊조리며 눈물만 흘릴 뿐 대응할 길은 없다. 작가는 이런 플롯 설정을 통해 만주가 이주민들이 궁핍하고 고단한 삶을 사는 공간임을 말해준다.

〈새벽〉에서와 같이 〈추석〉에서도 밀매는 살림을 꾸려 나가는 중

16) 유원숙, 『1930년대 일제의 조선인 만주 이민정책 연구』, 『부대사학』 제19집, 1995, 646면.
17) 김호웅, 『재만 조선인 문학 연구』, 국학자료원, 1997, 133면.

요한 수단으로 등장한다. 그 근원을 따지면 일제의 수탈 정책에 있다. 다시 말해 일제에게 물자를 전부 수탈을 당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당시 만주국의 이른바 '양곡출하법'에 의하면 농민들은 자기가 지은 농산품도 국가에서 제정한 헐값으로 국가에만 팔 수 있을 뿐 마음대로 시장에 내다팔 수도 없다. 양식이 떨어졌을 때는 국가로부터 상품가격인 고가로 사먹어야 하는데 사실 이법은 일제의 강제적 수탈정책이었다.[18]

> 그일을 생각하면 김서방은 지금까지도 안절부절 할지경이다. 김서방은 남의 물건을 탐내어 훔치는 것은 두말 할것업시 도적놈 이려니와 자기물건—아모리 자기 손으로 지은 물건이라도 잘못팔면 나라법에 의하여 그도 역시 범죄가되는 것은 작년일만이래도 충분히 알수잇섯다. 그리하여 그는 돈이아니라 생금이 써러진다손치드래도 자기안해가 걸은 위법한 그길만은 다시 안것기로 맹세를 하엿섯다.[19]

'나라법'은 김서방으로서는 감당해 낼 수 없는 것이다. 자기물건이라도 잘못 팔면 범죄가 된다는 것은 이주민들이 당하는 부당한 대우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여실히 보여준 부분이다. 아내가 사미 밀매하다 적발되어 이 법에 의해 죽었는데도 김서방은 여전히 잡힐 위험을 무릅쓰고 사미를 판매하여 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바로 계속되는 빈궁과 가난 때문이다. 일제의 참혹한 통제 속에서 연명하기 위해 '돈이아니라 생금이 써러진다손 치드래도' 자신은 하지 않기로 '맹세를 하엿'던 사미 밀매를 하고 만 것이다. 이로써 작가는 재만 조선인들이 일제 식민 정책으로 인한 고난과 궁핍의 희생물로 전락된다는 사실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18) 김장선, 『위만주국 시기 조선인 문학과 중국인 문학의 비교 연구』, 역락 2004, 121면.
19) 신서야, 〈추석〉, 앞의 책, 67면.

소설의 제목인 〈추석〉이 은유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민족의 가장 대표적인 큰 명절인 추석은 원래 그해 수확한 농작물을 차례상에 올리며 살아가는 기쁨을 느껴야 하는 풍성한 잔칫날이다. 그런데 김서방은 죽은 아내를 떠올리며 혼자 괴로워한다. 김서방에게 있어서 온 가족이 모여서 즐겁게 지내야 하는 풍요와 기쁨의 추석은 다른 어느 날보다 쌓인 한(恨)이 많은 상실과 빈곤의 날로 변모된다. 이 극적인 대비를 통해서 조선인들이 만주에서 얼마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큰 고통을 겪었는지를 알 수 있다.

金昌傑의 〈暗夜〉는 재만 조선인 명손이네와 고분이네가 겪게 되는 이야기를 다룬 소설로서 제목이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바와 같이 이주민의 생활을 '어두움'으로 보여주고 있다. 명손이와 고분이는 혼담이 오가는 연인 사이인데 고분이네는 너무 가난하여 고분이를 팔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딸을 팔지 않으면 계속되는 가난을 이길 수 없는 이주민들의 비참한 현실이 여실히 드러난다. 〈새벽〉의 창복 아버지처럼 고분이의 아버지 김성삼 역시 전주(錢主) 최영감에게 빌린 돈 2백50원을 갚지 못하게 되자 비극이 시작된다. 결국 명손이와 고분이는 고민하다 드디어 야반 도주 이외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음을 깨닫고 떠나가기로 한다. 떠나기 전에 명손이는 "이 어두운 밤이 밝으면 빗나는 대낫이 되드시 나와 고분이와의 압길에도 이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밝은 햇발이 비처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가난에서 벗어나 인간답게 살기 위한 첫 도약을 시도한다.[20]

〈암야〉는 청년 남녀 간의 이루지 못한 사랑과 갈등을 표현함으로써 당시 궁핍한 만주 개척지의 한 단면을 고발한다. 소설에 나타난 만주 표상은 지독한 가난으로 인해 결국 인간성의 상실(인신매매)이라는 극한 상황을 연출하는 공간이다. 〈새벽〉에 나온 것처럼 갚지 못

20) 김진아, 「재만 조선인 문학연구-≪싹트는 大地≫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韓民族語文學』 제46호, 2005, 367면.

하는 빚 대신 딸을 넘겨준다는 이런 설정은 당시 재만 조선인들이 얼마나 피폐하게 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낸다. 사실은 매매혼은 여성뿐만 아니라 재만 아주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 문제였는데 조선인 생활 전반을 뒤흔들 정도로 큰일인 동시에 흔한 일이기도 했다.

일제의 식민정책과 만주 개척 사업으로 인해 조선인들이 큰 고통과 한(恨)을 품게 된다. 빈궁의 터전으로서의 농촌은 더욱 일제 수탈정책의 중심이 되어 당시 농민의 삶은 어느 계층보다도 열악하고 흉악할 수밖에 없었다. '논이라고는 구경도 못하는 산꼴만주'라는 글귀에서 만주의 곤궁한 표상을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명손이는 '십년을 안즌자리에서 산꼴놈이 되고마는가' 하는 생각에 통분을 느낀다. 명손이와 고분이의 사랑은 단순히 남녀사이의 애정문제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적이다. 그들의 애정이 갈등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당시의 심각한 농촌사회의 수탈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주민들의 삶의 터전으로서 만주는 계속되는 궁핍으로 인해 딸을 팔아야 할 정도로 인간성 자체가 매매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수난의 공간으로 드러난다.

### 2) 일제 식민정책에의 동조: '오족협화의 공간'

만주는 어떤 국가나 민족의 문화로 설명할 수 없는 '비식별역'[21]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와 같은 특수한 지리적

21) 수학의 집합 이론에 의해 두 집합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경계 영역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이던 것이 법철학의 노모스-퓌시스 논쟁에서 법과 자연 두 세계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영역을 뜻하는 용어로 차용되었다. 만주와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의 위치는 이러한 배제와 포함 사이의 '비식별역'이라 할 수 있다. 민족의 영역으로도, 국가의 영역으로도 하나의 집합에 속하지 않는, 때로는 포함되고 때로는 배제되는 영역인 것이다. 만주 이주 조선인들은 국적이 일본인 치외법권적 존재이면서 일본인이 치외법권 지역에서 누리는 권리를 누리지 못했고 때로는 일본의 법에 때로는 중국의 법에 예속되었다.

문화적 토대 위에서 작가들이 창작 활동을 전개할 때는 모름지기 만주국의 건국 정신이 알게 모르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만주에서의 창작에는 일제가 주창하는 이른바 협화 이념이 작품 안에 스며들 수밖에 없었다. ≪싹트는 대지≫에 수록된 중·단편소설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朴榮濬의 〈密林의 女人〉, 韓贊淑의 〈草原〉, 玄卿駿의 〈流氓〉 등이 그 사실적인 사례이다. 일제의 국책에 입각하여 서술된 이 소설들에 등장하는 만주는 '오족협화'[22]라는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민족협화 정책을 수행하는 공간이 된다.

일제는 만주국 건국에 있어 만주에서의 '民族協和(五族協和)·王道樂土', 華北에서의 '北支人의 北支', 내몽골에서의 '몽골민족 부흥' 등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23] '오족협화'는 일본 중심의 위계질서 확립에 매우 중요한 치국이념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강한 이념공작을 수반하였다. 〈밀림의 여인〉, 〈초원〉, 〈유맹〉에 등장한 주인공들은 공통적으로 수준 높은 지식이나 안목을 가졌거나 혹은 어떤 이념을 소화하고 전파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로써 이들은 일제의 협화 정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인물유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朴榮濬의 〈密林의 女人〉은 일제의 이념공작을 문학적으로 형상화

22) 일본 NHK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만주국군≫에 의하면 '오족'은 중국인, 만주인, 몽고인, 일본인, 조선인이라고 소개되었다. 또한 ≪만주국군≫ 영상자료를 보면 '오족협화'는 만주와 조선에서 징병하는 문제에서 더 많이 체현됨을 알 수 있다. 일본은 병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만주의 중국인, 조선인, 몽고인들을 후비역량으로 양성한다. 일본이 실행한 청소년 이민이 바로 그것이다. 16~19세 되는 청소년들을 집중적으로 모아서 훈련시키는데 그들의 마음을 뭉치기 위하여 '오족협화'를 내세운다. 물론 '오족협화'나 '민족협화'는 청소년 징병에만 사용한 것이 아니다. '오족협화'의 정신은 무릇 서로 다른 민족이 어울리는 곳이면 그 개념이 사용되었던 것이다. 일본은 만주국에서 '오족협화', '민족협화'의 기치를 고도로 집중시켰지만 그 실질은 이주 온 조선인들을 이용하여 민족 사이 모순을 조성하고 그것을 저들의 침화(侵華)전쟁의 유력한 핑계로 만들기 위함이었다.

23) 任城模, 「滿洲國協和會의 對民支配政策과 그 實態」, 『東洋史學硏究』 제42호, 1993, 101면.

한 작품으로서 김순이라는 처녀가 공산비 대원으로 10여 년에 걸쳐 산속생활을 하던 끝에 일제 토벌군에 사로잡혀 산 속에서 나와 '나'가 베푸는 희생과 교화를 받아 사회에 복귀한다는 내용을 그린 소설이다. 김순이는 "사회라든가 국가라든가 하는 관념을 너무나 달리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식보다도 사상보다도 생활 그것으로써 주의(主義)를 실행하던"[24] '공산비'로 설정되어 있는데 자신을 집에서 내쫓았던 부모에 대해 한을 품고 투쟁 의지가 강한 반항형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이런 인물을 귀화시키고 만주국 국민으로 만드는 것은 만주국 이념과 국책에 부합하는 일이다. 당시 일제는 만주국 건국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민중에게 선전하고 주입시키기 위해 '협화회(協和會)'같은 조직을 만들었다. 이 소설에 나온 것과 같이 유격대(遊擊隊)를 귀순시키는 일은 협화회의 주요 임무였다. 그들은 귀순자들을 사상적으로 선도하고 조직적으로 감시하는 동시에 직업적으로 지도하였다.[25]

박영준은 1938년에 길림성 반석현(磐石縣)으로 이주하여 협화회 懷撫職員으로 근무했다는 이력[26]이 있어서 〈密林의 女人〉은 "宣撫工作의 事實을 小說化"[27]한 작품이라는 견해가 있다. 소설에 등장하는 김순이는 오랜 산속 생활을 해서 문명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고 '나'는 지식층이면서 만주국에서 관리로 일할 정도로 현실에 잘 적응하는 인물이다. 이러한 순이와 '나'의 관계는 문명과 야만의 관계로 도식화되고 '나'에 의해 순이는 개조되어야 할 대상으로 규정된다. 오랫동안 밀림생활을 해온 순이를 문명 속으로 즉 만주국의 일원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나'의 임무였다. 이 두 인물의 대립과 갈

24) 박영준, 〈밀림의 여인〉, ≪싹트는 대지≫, 만선일보사 출판부, 1941, 28면.
25) 任城模, 앞의 글, 154면.
26) 김호웅, 앞의 책, 127면.
27) 김오성, 「조선의 개척문학-재만 조선인 작품집 ≪싹트는 大地≫를 평함-」, 『국민문학』 제3집, 1943, 22면.

등이 소설을 이끌어 가는 중심축의 역할을 한다.

순이는 어렸을 때부터 밀림 속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세상 물정을 전혀 알지 못해서 온갖 행패를 부리는 야생마와 같다. 이런 사람을 '인간적인 여인'이 되어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와 진정한 여인으로 전환하도록 헌신적으로 돕는 것은 '나'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순이가 '공산비'로 대표되는 인물설정이라는 것이다.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순이를 집에 데리고 와 인내심을 가지고 교화시킨다는 것은 항일 혁명세력을 토벌하여 그들을 만주국 건국이념에 맞는 국민으로 만들고 나아가 새 국민으로 편입시키는 일에 해당된다. 표면적으로 보면 '나'가 순이를 서서히 교화시켜 문명의 삶에 적응하도록 노력하는데 내면적으로 보면 작가는 작품을 통해 어질고 자애로운 지식인의 모습과 '협화회'의 귀순공작을 긍정적으로 묘사한다. 그럼으로써 일제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고 일제 국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韓贊淑의 〈草原〉은 몽고 소녀 마루도와 조선족 청년 임봉익과의 사랑을 다루고 있다. 몽고족과 조선족 간의 화합을 반영해서 '협화미담'에 속한 작품이다. 한찬숙은 '간도 일본총영사관'에 근무하다가 '間島 汪淸縣實業科長'으로 재직하였으며 주인공 임봉익은 역시 기공서(旗公署)의 축산주임으로 설정되어 더욱 실화 같은 느낌과 작가의 강한 의도가 전해진다.

〈초원〉에 나타난 초원은 아름답고 낭만적인 자연경치가 아니고 그저 개발 대상으로 존재한다. 이런 초원에서 양을 치는 처녀인 마루도가 조선인 청년 임봉익을 만나게 된다. 봉익의 눈에는 몽골족이 미개한 원시적인 유목민족으로 보이고 '과학 문명과 현대 지식'을 갖지 못한 존재로 내비친다. 때문에 그에게는 "몽고 만족의 손발이 되어가지고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일신을 바쳐야 될 마음"[28]이 생겨

28) 한찬숙, 〈초원〉, 신영철 편, ≪싹트는 대지≫, 만선일보사 출판부, 1941, 159

낙후하고 후진한 종족의 지도를 자청하게 된다. 이 소설은 몽고의 초원을 배경으로 두 남녀의 순수한 사랑이야기를 다루는 것 같지만 그 사랑이 〈밀림의 여인〉과 마찬가지로 시혜(施惠)로 변질된 듯한 느낌을 주고 인물과 환경의 설정이 일제가 내세운 '오족협화' 정신에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문학적 완성도보다 미개한 민족을 구제한다는 쪽을 강조하려는 작가의 창작의도가 돋보인다. 마루도가 조선 사람에 대해 인식하는 것은 "저 구름 아래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잇고 그 나라에 조선 사람이 잇다"[29]라는 묘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로써 작가 한찬숙이 오족협화·내선일체의 사상을 가지고 있거나 적어도 일본의 식민정책을 인정한다는 점이 노출된다.

> 조선과의 합방에 성공한 당시의 일본은 만주국을 발판으로 하여 몽골을 포함한 대륙 전체를 그들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정책을 펴가고 있었다. <초원>은 저간의 그러한 시대적 추세와 아주 정확하게 맞물려 있다. 우리 민족은 물론 만주족, 몽골족까지 한 덩어리가 되고 화합하여 동양에 평화와 영화를 실현하자는 게 당시의 일본이 내세우던 바로 그 오족협화 정신이 아니었던가.[30]

오양호는 1930년대 후반 간도지역에서 발표된 일련의 문학을 망명문학으로 규정하면서 위의 인용문에 나타난 것과 같이 〈초원〉이 일본에 의해 내세워진 '오족협화'의 이데올로기에 어느 정도 동조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당시 일제는 몽골을 포함한 대륙 전체를 개척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고 식민지 통치의 합리화를 위해 문명과 야만이라는 이분법적

---

면.

29) 한찬숙, 앞의 책, 133면.

30) 오양호, 「만주체험의 두 반응(Ⅰ) —≪싹트는 大地≫의 문학사적 의미」, 『대륙문학을 다시 읽는다』, 대륙문학연구소 출판부, 1992, 234면.

논리에 따라 아시아 국가들을 타자화 함으로써 스스로를 선진과 문명으로 규정한다. 그 문명이라는 증거는 주변에서 야만을 발견하고 그러한 야만의 토지를 영유함으로써만 현실화할 수 있었다. 당시에 몽고는 소련과 인접해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활불(活佛)로 대표되는 미개한 몽고의 전통은 몽고 민족을 더욱 열등하고 야만적인 것으로 만들고 이런 열등함은 과학적 사고와 합리적 생활방식에 의해 비판받고 개조된다. 그리고 이러한 개조를 통한 위계화는 봉사라는 이름을 통해 정당화된다.[31] 사실은 일제가 내세운 '오족협화' 이념은 오히려 민족 사이의 모순을 조성하고 식민침략을 은폐하기 위한 조작된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한찬숙은 봉익이라는 인물을 통해 타자를 배제, 억압하며 나아가 그들에게 동화를 강요하는 일제의 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다.

玄卿駿의 〈流氓〉은 보도소(輔導所)가 있는 폐쇄된 수용 부락을 중심 무대로 그곳에 강제 수용된 사람들의 애환과 갈등 그리고 일제의 아편 정책으로 인한 감금의 정당화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자신의 탐방기를 바탕으로 〈유맹〉을 쓰게 되는데 이 작품은 자신이 말한 것처럼 보고문학적 성격이 강함을 확인할 수 있다."[32] 일제는 왕도낙토를 구축하기 위해 아편중독자, 밀수업자, 도박꾼, 사기범 등을 수용하여 새로운 인간으로 개조시키고자 한다. 또한 수용자들은 보도소에서 엄격한 감시와 통제를 받아 줄곧 탈출을 시도하기도 하고 심지어 마약을 밀매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결국 이런 수용자들은 좀체 마음을 돌려 갱생의 길을 찾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시의 일제의 교화라는 것은 허위와 위악으로 가득 찬 것임을 말해준다.

---

31) 김진아, 앞의 글, 360면.
32) 조진기, 「만주이주민의 현실왜곡과 체제순응-현경준의 〈마음의 琴線〉에 대하여-」, 『현대소설 연구』 제17호, 2002, 209면.

주인공 명우는 동경유학생인데 실연으로 인해 아편중독자가 되어 만주에 들어온 청년이다. 명우는 아편에서 벗어나 갱생하려는 모습을 보여 성공적인 개조의 사례인데 보도소장의 주선으로 순녀와 결혼하게 된다. 이에 대립되어 규선은 마약 거래를 하다가 들켜서 도주하였지만 끝내 잡혔고 아내까지 자살한다는 비극적인 인물이다. 명우와 규선이라는 인물의 운명의 대비를 통해서 일제의 식민정책과 통치 질서에 순응하려는 작가의 창작의도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소설에 나타난 보도소를 설치하는 이유와 보도소장의 설교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

> 언제나 하는말이지만 우리 만주국(滿洲國)에서 전만(全滿) 오개소에다가 이러한 특수부락을 설치한것은 무슨 까닭인줄 아시우? 빗두루 인생의 행로에서 탈선하여 나간 여러분을 바른길루 다시금 인도하여 주려는 것이 그 제일본의라는것은 자초부터 알수잇슨 일이 아니우? 왕도락토(王道樂土)를 건설하려는 만주국이 아니고는 꿈에두 상상할 수 업는 이런 고마운 혜택을 모르구 여전히 빗두루한 나가려는 여러분을 대할때 나는 참말 세상사가 슬퍼나서 견딜수가 없소.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다 쓰라린 과거를 가지고 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케 여러분과 고락을 가치하며 여러분의 그 쓰라린 과거를 여러분의 기억에서 흔적업시 씨서버리구 새로운 광명의 길을 밟게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여러분께 장래의 은혜를 지워서 그 가픔을 바드려구 이러는것두 아니구 내 뱃속을 채우려는 것두 아닙니다.[33]

보도소장은 일제의 만주 식민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면서 보도소를 설치한 것은 탈선한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만주에서 '왕도낙토'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로 보아 보도소는 사실

33) 현경준, 〈유맹〉, 신영철 편, 앞의 책, 172~173면.

상 모든 사람을 만주국의 통치질서에 따르도록 만들기 위해 세워진 하나의 국책적인 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보도소를 설치한 근본적인 목적은 아편중독자들이 지니고 있는 기술과 지식을 이용하려는 데 있었다. 일제는 아편중독자를 치료한다는 명의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강생원(康生院)이라는 수용소를 설치했는데 강생원에 들어가는 사람이 대부분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를 만들 수 있는 목수, 피혁공, 제화공 등과 같은 일정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나 지식인들이다. '왕도낙토', '도의국가'를 건설하는 데 자발적으로 앞장서는 보도소장의 행위는 표면적으로는 조선인 낙오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배려인 것 같지만 사실상 그들이 필요로 하는 중독자들을 회유하고 설득하여 자신들의 필요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34] 그래서 〈유맹〉은 철두철미하게 일제의 식민정책에 동조하고 민족협화의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술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에 나타난 만주의 표상은 왕도낙토를 건설하는 '오족협화'의 공간으로 설정되었다.

### 3) 절망과 허무의식: '도피의 공간'

일제가 만주 지식인들에 대한 탄압과 회유를 병행함으로써 지식청년들의 좌절과 내면적인 갈등은 절망과 허무의식으로 전화된다. 그래서 그들은 우울한 현실세계로부터 탈출하고자 한다. 黃健의 〈祭火〉는 희망을 갖고 만주에 이주해 온 '나'가 만주에서의 문화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실망과 낙심을 겪는 과정을 그리는 1인칭 서간체 형식의 작품이다. 작품에는 뚜렷한 형상화의 서사가 결여되어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줄곧 주인공 혼자만의 내면세계와 괴로워하는 모습이 부각된다.

34) 김진아, 앞의 글, 362면.

‘나’는 만주에서 문화청년회를 결성하여 활동하려 했는데 일제에 의해 문화 활동은 점차 어려워지게 된다. 그러므로 절망에 빠진 ‘나’는 임원들의 싸움에 끼어들게 되고 마침내 문화청년회는 해체되고 만다. 여자 회원인 ‘기주’와 서로 마음을 주고 받는 사이인데 그것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청년회 회원 ‘팔수’에게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지만 또한 그 가능성 속에 감춰진 허구성을 발견하여 절망하기도 한다. 그리고 다른 회원들의 현실 순응 자세에 대해 맹렬히 비판한다. 그들이 반성이나 자책 혹은 고민은 하지 않은 채로 세태에 동조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주인공은 현실에 대해 혐오감과 도피 충동으로 자포자기의 인간이 되어 고뇌와 갈등의 포로가 되고 만다. ‘나’의 절망은 주변 사람들에 의해 생긴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따지면 내 자신에게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 한때는 나도 영웅시대를 가졋섯다. 미래만을 아럿섯다. 현재라는 것도 미래에 통하여 잇섯기 때문에 모든 것은 힘과 보람에 차 밝엇섯다. 허나 나는 그로부터 십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엿다. 그 사이에 나는 이제썻 몰랏든 너무나 만흔 경악과 회의를 포태하게 되엇든 것이니 아름다웁고 진실할려든 모든 성곽은 아ㅅ찔하여 갓다. 그래도 나는 마치 사람에게 쏘찌우는 고기와도 가치 매키우는 곳에서마다 다른 성곽 다른 길을 차저 헤매엿섯다. 허나 스산하고도 어두운 오래인 밤뒤 나는 드디어 자신이 왼갓것에서 배반당하고 마럿슴을 아럿다.[35]

‘나’도 영웅시대를 가진 적이 있고 힘과 보람에 차 있었지만 이제 만주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면서 밑도 끝도 없는 절망과 공허감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절망의 공간에서 ‘나’에게 미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주에 처음 왔을 때의 희망과 갈망이 경악과 회의로 바

35) 황건, 〈제화〉, 신영철 편, 앞의 책, 260면.

뀐 것을 알아차린 '나'는 막막한 허무의식으로 인해 인생의 갈림길에서 좌절하고 있다. 만주에서 비교적으로 잘 적응한 태규와 달리 '나'와 필수에게 있어 만주는 더 이상 희망의 땅이 아니다. 현실체계에 쉽게 순응할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도망하여 나갈 수도 없기 때문에 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 아모리 싸호고 무러뜻고 한단들 오늘의 암담과 무질서는 처음부터 구할수업는것인지도 몰랏다. 그러나 보담 진실되려하고 더구든 미덤과 보람을 가지려하엿든 넉세 잇서서는 그 어떤 재출발에의 결정적인 결산이 동시에 필요하엿든 것이겟다. 문화며 문화의 건설이며 이성이며 양심이며 하는 미명 미테서 환경이며 개성이며 영웅이며 나종에는 영웅을 못가진 세기의 불행이며 하는 것 까지를 각기 이야기하게 되엇다.[36]

아무리 싸우고 물어뜯고 해도 일제 식민지 시대 같은 암담과 무질서는 없다고 말한다. '문화며 문화의 건설이며 이성이며 양심이며 하는'것이 모두 '미명'이나 거짓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영웅을 못 가진 세기의 불행'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 시대라고 고발한다. 만주국이 내세운 '민족협화'의 '왕도낙토'가 약속하는 미래가 모두 허구라는 것을 간파한 이상 만주에 대한 모든 갈망이나 욕망 혹은 미련도 남지 않게 된다. 이국의 땅에서 살아가는 지식 청년이 과거에 집착하며 현재에 편안히 살지 못함으로써 생긴 우울함은 만주국 건국이념의 허구성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과 함께 만주국의 현실에서 겪는 고뇌와 갈등을 경험한 지식인 청년의 심리상태를 대변한다. 〈제화〉에서는 특별한 스토리가 전개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정적인 분위기가 오히려 절망적이고 침울한 그 시대상황을 밝혀내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36) 황건, 앞의 책, 258면.

영웅을 가지지 못한 세기는 일제의 지배를 당하는 국권을 상실한 조선과 나약한 조선인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 그중에도 직스리웟든 일부 인간들을 제대로 낫닉은 옛 항간에 도라가게 하엿든 것은 이 시대가 준 조흔것이엇다고 하겟지만 아모런 반성도 가책도 고민도 업는 속에 형태를 바꾸기는 하엿스나 오늘까지도 그 교묘하게 된 헤랭이를 모로 거꾸로 쓰고 우러든 이름 미테서 제딴은 춤을 추려하는 그 허튼 꼴들이란 참 볼수업는 것이었네.[37]

위에서 보듯이 작자는 일제에 대해 은근히 비판하면서도 아무런 반성도 가책도 고민도 없는 조선민족에 대해 상당히 거세고 격한 어조로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나아가 태규에게 주먹을 날린 것을 통해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는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무질서한지를 통탄한다. 젊은이들의 고뇌와 분노는 결국 친구들끼리 주먹다짐을 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다.

> 오랫동안의 탄력업는 모든의식이 무기력하게나마 해결점을 향하여 폭발하엿든 것이 끗내 이것이엇든가 생각하면 모두 우스운일이엇다. 내가 필수편을 드러 태규를 때렷다는것이나 그 일로하여 필수가 나에게 전보다더 친밀하게 생각되는일이 잇겟다거나 모두가 어린아이 작난과도 가탯다. 허나 그 보나 나의마음을 멧곱절 더 아피게하엿든것은 일쓰기 남달리자라왓든 서로의 우정이 만주라는 먼곳에 와서 이러케 참혹하게 문질러지고 마럿다는 사실이엇다. 이는 마치 나의 보고 듯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속에 오랜전부터 가녀리게 자라오든 그늘진 사슴에의 한 마즈막 선고와도 가탯다. 동시에 모든것은 아득한 옛일과 가텃다.[38]

37) 앞의 책, 260면.
38) 앞의 책, 263면.

일제 때문에 쫓겨 온 만주에서 친구와의 우정이 깨어지고 있는 것을 비탄한다는 것은 곧 이주 생활에 대한 증오와 절망으로 연결된다. 이것은 일제 협화 이데올로기에 내재된 모순이나 허위성을 폭로하는 한 단면이다. 절망과 허무의식이 이 소설을 이끌어 가는 주된 모티프인데 침울함과 답답함은 소설 전체에 스며들어 있고 독자로 하여금 그 시대 만주의 표상을 인식하게 한다. 일제의 만주 협화 이념은 내선일체라는 음모를 꾀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다.

〈제화〉는 일제의 국책문학에서 벗어나고 만주국의 당위성과 합리성을 홍보한 작품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서술된 작품이다. 〈제화〉에서 놓칠 수 없는 부분은 바로 절망과 도피의식이다. 그런데 이 절망과 도피의식은 〈제화〉뿐만 아니라 〈암야〉에서도 나타난다. 하지만 소설 속의 정서의 주체가 다름으로 인해 그 성격 또한 차이가 있다. 농민이 주체로 설정된 〈암야〉에서의 절망과 도피의식은 사회적 부조리로부터의 탈출을 갈망하는 의식을 반영하는 반면, 지식인이 주체인 〈제화〉에서는 지식인 특유의 허무의식을 강하게 수반한다. 그래서 만주 지식인의 끝없는 절망과 허무, 좌절 등을 통해 만주국 건국이념의 모순성과 허위성을 폭로하려 한다. 소설 속에 나타난 만주는 주인공이 못 견딜 만큼 괴로운 지경에서 죽음에 가치를 부여하고 현실을 도피하려는 공간으로 표상된다.

## 3. 맺음말

지금까지 ≪싹트는 대지≫에 수록된 작품 일곱 편을 중심으로 재만 소선인 중·단편 소설에 나타난 만주의 표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당시 『만선일보』에 실린 많은 작품들은 이 신문의 취지와는

달리 만주 조선인의 생활과 정서를 다양한 형태로 대변하고 있다는 평가와 같이 안수길의 〈새벽〉, 신서야의 〈추석〉, 김창걸의 〈암야〉 등의 작품은 만주 개척지에서의 가난하고 고달픈 조선인의 삶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 작품들은 "전기 개척민의 생활을 그린 것"[39]으로서 초기 이주민들의 수난사를 여실히 드러내며, 간도 조선인들의 극한 궁핍과 비극적 삶을 애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작품 속에 동족을 괴롭히는 박치만 같은 얼되놈을 등장시킴으로써 이주민들이 낯선 땅에서 겪은 고통과 부조리를 고발한다. 동시에 일제에 의해 자행된 만주 지배의 수단인 이한제한(以韓制韓)에 의해 야기된 민족분열과 갈등의 실상을 사실적으로 폭로한다. 이 작품들에 나타난 만주는 고난과 궁핍으로 인한 이주민들의 '수난의 공간'으로 표상된다.

≪싹트는 대지≫는 『만선일보』를 중심으로 성립된 소설집이기 때문에 그 성격은 『만선일보』의 국책적인 성격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싹트는 대지≫에 수록된 작품들은 대부분 『만선일보』 지면에 발표했던 소설들이므로 그 소설에는 친일적인 성향이나 만주국 치국이념에 부합하는 주제의식이 배어들기 마련이다. 박영준의 〈밀립의 여인〉은 일제에 저항하는 공산비를 선무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한찬숙의 〈초원〉은 일제 침략을 정당화하여 민족협화의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며, 현경준의 〈유맹〉은 일제의 국책에 순응하여 왕도낙토를 건설하려는 통치이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 소설들에 나타난 만주의 표상은 일제의 만주정책을 지원하고 시대적 현실에 순종하는 '오족협화'의 공간임을 확인하게 된다. 이것은 "신만주의 협화정신을 체득한 국민문학에까지 전개"[40]하자는 염상섭의 희망이나 "민족협화, 왕도낙토를 목표로 새출발한 만주건국"[41]이라는

39) 염상섭, 앞의 책, 3면.
40) 염상섭, ≪싹트는 대지≫ 서문, 3면.

신영철의 기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한편 황건의 〈제화〉는 만주국을 절망과 혼돈의 공간으로 설정한다. 희망을 갖고 만주에 갔던 주인공이 '문화청년회'를 둘러싸고 친구와 벌이는 갈등을 다루는 작품이다. 이 소설은 현실에 대한 절망과 허무의식으로 인해 자살을 결심하는 '나'를 통해 일제 협화 이념의 희생물로 전락된 만주 이주민의 애절한 심정과 피로감을 잘 반영한다. 그럼으로써 만주국의 그늘을 부각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나아가 비록 일제 건국이념의 허구성을 피력하려는 시도가 마침내 비관적 시각에 머물고 말았지만 일제 식민정책으로 인해 지식인들이 겪은 고뇌와 혼란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황건의 소설에 표현된 만주는 절망과 허무의식이 가득한 도피의 공간으로 드러난다.

≪싹트는 대지≫ 수록 소설에 나타난 '만주'의 성격은 다층적이다. 농촌과 농민을 중심으로 한 '수난의 공간', 정치이데올로기의 장으로서의 '오족협화의 공간', 지식인의 심리가 반영된 '도피의 공간'이 공존하는 곳이 바로 만주였다. 이는 무엇보다 만주라는 곳이 어떤 하나의 국가나 민족을 통해 설명되지 않는 이른바 '비식별역'이었다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 당시 재만 조선인을 놓고 보면, 민족적으로는 조선인, 거주지는 중국, 국적은 중국 혹은 일본을 선택해야 하는 복잡한 처지였다. 이런 처지에서 생존해야 하는 조선인들에게 있어서 만주는 보다 쉽게 수난의 공간이 될 수 있다. 당시 작가들 또한 작품을 통해 일본의 통치이데올로기인 '오족협화'나 '왕도낙토'를 선전하는 일을 하기도 했다. 지식인들은 일제가 조작한 통치 이데올로기에 은폐된 허구성을 폭로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현실도피의식에 함몰되고 만다.

≪싹트는 대지≫는 만주에 이주한 조선인들의 생활상을 입체적으

41) 신영철, 앞의 책, 2면.

로 반영하는 동시에 재만 조선인 문학의 독자성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문학사적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 중 많은 작품이 일제의 건국이념과 식민정책을 수용하는 친일적 성향의 국책문학이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와 같이 복합적 성격의 ≪싹트는 대지≫를 두고서 일제가 큰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그 이유는 일제가 만주국에서의 조선 문학을 자생적인 민족 문학으로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으로서 조선어를 창작 언어로 삼았다는 것 또한 보다 구체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당시의 재만 조선인의 창작은 일제뿐만 아니라 타민족의 배척을 받기에도 유리한 지점에 있었다. 위에서 말했듯이 ≪싹트는 대지≫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수의 작품은 만주국의 기본 국책을 수용하고 일제 식민정책을 옹호하고 있다. 이에 일제를 제외한 타민족의 배척을 받게 되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이다. 재만 조선인을 '일본인의 앞잡이'로만 인식한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싹트는 대지≫는 역시 앞잡이 문학의 대명사로서 눈여겨 볼 대상이 아닐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작가들은 어쩌면 같은 처지인 조선인 작가들을 완전히 배격하지는 않았다. 서로 간의 이해의 끈을 놓지는 않았으며 교류를 단절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재만 조선인 작가들의 심리적 상황에서도 보면 ≪싹트는 대지≫를 비롯한 재만 조선인 문학은 일본과 중국 문단과의 역학관계 속에서 다중적 시선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의식 또한 어쩌면 본의 아니게 다면성을 갖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겠다. 재만 조선인 작가들에게 만주는 공간적 비식별역이자 심리적 비식별역으로서 다층적 다면적 공간이었던 셈이다.

만주는 한국 근대문학에서 색다른 의미를 가진 특수한 공간이었다. 본고에서는 ≪싹트는 대지≫ 에 수록된 작품을 중심으로 만주의 표상을 드러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따라서 만주의 표상에 내재한

중층적 다면적 성격에 대한 정밀한 해석에는 많은 지면을 할당하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두고서 지속적인 고민을 이어가고자 한다.

# ■ 참고문헌 ■


## 1. 기본자료

申瑩澈 編, ≪싹트는 大地≫, 滿鮮日報社出版部, 1941.

김재용·허경진 편, 『만주기행문』, 보고사, 2010.

민족문화연구소, 『일제말기 문인들의 만주체험』, 역락, 2007.

민현기 편, 『한국유이민소설선집』, 계명대학교출판부, 1989.

태학사편집부, 『한국근대단편소설대계』4, 태학사, 1988.

『만선일보』(영인본)전5권(1939.12.1.~1940.9.30.), 아세아문화사, 1988.

## 2. 단행본

김윤식, 『안수길연구』, 정음사,1986.

김장선, 『위만주국시기 조선인문학과 중국인문학의 비교연구』, 역락, 2004.

김재용, 『재일본 및 재만주 친일문학의 논리』, 역락, 2004.

김호웅, 『재만 조선인 문학연구』, 국학자료원, 1997.

나병철, 『탈식민주의와 근대문학』, 문예출판사, 2004.

송민호, 『일제말 암흑기문학연구』, 새문사, 1991.

오양호, 『일제강점기 만주조선인 문학연구』, 문예출판사, 1996.

이광일, 『해방 후 조선족 소설문학 연구』, 민족문제연구소, 2003.

임종국, 『친일문학론』, 평화출판사, 1966.

조진기, 『일제말기 국책과 체제순응의 문학』, 소명출판, 2010.

채 훈, 『일제강점기 재만 한국문학연구』, 깊은샘, 1990.

최원식, 『한국문학의 근대성을 다시 생각한다』, 창작과 비평, 1994.

최일, 『조선현대작가들의 중국체험소설연구』, 연변대학교출판사, 1999.

하정일, 『탈식민의 미학』, 소명출판, 2008.

한수영, 『친일문학의 재인식--1937~1945년 간의 한국소설과 식민주의』, 소명출판, 2005.

호미바바 저, 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 2005.

### 3. 논문

김도형, 「식민지시기 재만 조선인의 삶과 기억-한말 일제하 한국인의 만주인식」, 『동방학지』 제144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32면, 2008.

손유경, 「만주 개척 서사에 나타난 애도의 정치학」, 『현대소설연구』 제42호, 한국현대소설학회, 191~227면, 2009.

송현호, 「일제강점기 소설에 나타난 간도의 세 가지 양상」, 『한중인문학연구』 제24호, 中韓人文科學硏究會, 25~45면, 2008.

오상순, 「표면구조에서의 국책선전과 심층구조에서의 허구성 비판」, 『현대문학의 연구』 제36호, 한국문학연구학회, 87~110면, 2008.

이경훈, 「만주와 친일로맨티시즘」, 『한국근대문학연구』 제4호, 한국근대문학회, 92~119면, 2003.

이정숙, 「해방기 소설에 나타난 귀환의 양상 고찰」, 『현대소설연구』 제48호, 한국현대소설학회, 45~76면, 2011.

임명진, 「일제강점기 '재만한인소설(在滿韓人小說)'을 통해 본 '만주'의 문제」, 『현대소설연구』 제31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9~51면, 2006.

장춘식, 「재만 조선인문학을 보는 또 다른 시각」,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71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79~297면, 2016.

장현숙, 「현대소설에 나타난 만주체험」, 『아시아문화연구』 제14호,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217면, 2008.

정종현, 「근대문학에 나타난 '만주' 표상」, 『한국문학연구』 제28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29~259면, 2005.

조진기, 「만주이주민의 현실왜곡과 체제순응-현경준의 <마음의 琴線>에 대하여-」, 『현대소설연구』 제17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7~227면, 2002.

츠카세 스스무, 「근대에 있어서 만주의 문제」, 『만주연구』 제6집, 만주학회, 75~85면, 2007.

**<Abstract>**

# A Study on the "Manchuria" Image in the Novelettes and Short Stories of Manchuria Korean －Focused on the collection of works in *Ssakteuneun Daeji*－

Zhang, Nai Yu

The paper studies the Manchuria image appearing in the novelettes and short stories that are embodied in the Manchuria Korean collection of works －－ *Ssakteuneun Daeji*, which is published by *Manseonilbo office*. Some works, such as Saebyeok (Dawn) written by An Sugill; *Chuseok* (*Thanksgiving Day*) written by Sin Seoya; *Amya* (*Dark Night*) written by Gim Changgeol, depict the early lives of Korean immigrants, truthfully recording their rough time history. Besides restoring the extremely poor and tragic life of Manchuria Korean, these works also reveal the pain and unfair treatment people received in the strange land. Therefore, the "Manchuria" mentioned in the three works above has become a place where the poor Manchuria Korean had a hard time.

Meanwhile, *Ssakteuneun Daeji* is a collection of novels focusing on the novels published in the *Manseonilbo office*; therefor, its quality is bound to be pro-Japanese. Serial novels in *Ssakteuneun Daeji* naturally are also pro-Japanese and cater to the theme of Manchuria's idea of governing. *Milimeui Yeoin* (*Woman in Jungle*), written by

Bak Yeongjun, describes the process of appeasing anti-Japanese armed fighters. "Manchuria" occurs in these novels has become a place where caters to reality and supports the Japan's ruling idea of "Minjokyeopwa".

However, *Jehwa*, written by Hwang Geon, describes Manchuria as a place full of despair and chaos. In the novel, the hero who cherishes hope when he enters Manchuria has an arguement with his friends about "cultural youth society". The novel describes that "I" decide to kill "myself" because "I" am disappointed at the reality of life and feel unconscious, which reveals the contradiction and hypocrisy of Manchuria's theory of state construction. The hero's decision of ending his life in the unbearable reality reveals both the consciousness of escape from reality and the failed attempt to uncover the hypocrisy of Japanese empire ruling idea, which becomes the juncture to turn the novel to a tragedy.

In the novels collected in *Ssakteuneun Daeji,* Manchuria is a place of suffering, a place of propagandizing the ideology of *OJokhyeophwa* and it is also a place to escape for intellectuals. Such coexistence of multilayered meanings is closely related to the spatial overlap of Manchuria, a culturally and spatially "non-identified domain". *Ssakteuneun Daeji* could not escape from the negative evaluation such as "pro-Japanese literature", or "literature of national policy and propaganda". Such phenomenon is the result of the multiple consciousness, in other words, "psychologically non-identified domain", of Korean writers in Manchuria.

Key words: *Ssakteuneun Daeji*, the image of Manchuria, *OJokhyeophwa*, tough time history, unconscious

투 고 일 : 2017년 5월 14일 심 사 일 : 2017년 5월 25일-6월 8일
게재확정일 : 2017년 6월 10일 수정마감일 : 2017년 6월 19일